COLUMN

2009년, 토종오리산업에도 새바람이 필요하다.

윤영호
(사)한국오리협회 토종오리분과 위원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4일 총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토종오리분과 위원장 윤영호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토종오리 종란생산 · 부화 · 사육 · 유통에 이르기까지 토종오리 전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친환경중추오리와 재래시장, 농장 등에 꾸준히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AI발생으로 인하여 토종오리 업계에도 허리케인보다 더한 강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친환경오리와 재래시장에 건강한 오리를 공급하고자 철저한 소독과 예방에 기울였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전국적으로 수백만수의 중추오리와 수백만 개의 부화중인 오리알과 종란 종오리들은 도태시켜야 했던 쓰라린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토종오리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토종오리 공급과 사육에 방역과 예방에 소홀히 한 적은 없었는지 뒤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땅에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축사 내 · 외부에 정기적인 소독과 부화장, 생체오리운반차량 등에 철저한 소독으로 AI 및 질병을 예방하여 청정 대한민국을 이루어 갑시다.

이제는 토종오리 업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전의 친환경오리농법도 5월과 6월에 집중되어 늘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어왔고 재래시장의 중추오리도 3월부터 6월까지의 수요가 급증하였다가 7월 이후의 수요가 중단되다시피 하여 왔습니다. 과거의 농장경영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둘째,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토종오리의 특징을 살려갑시다. 친환경축산이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정부의 정책 사업이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사육방식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사육으로의 전환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무항생제 사료급여 체제와 사양관리를 연구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야 할 때이며 축사시설 개, 보수, 신축 사업도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토종오리 종자 개량 사업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여야 합니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혈통도 부정확한 오리로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축산대학과 축산연구소, 축산과학원에 유능한 학자와 연구원분들과 토종오리 개량 사업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여 한국형 오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병에 강하고 품질 좋은 오리를 생산 공급하고 한국형 오리를 세계로 수출할 수 있도록 업계와 회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며 공동의 발전을 생각하며 오리산업의 무한한 발전을 이루어 갑시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구약성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란 구절이 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의 밤을 지나 소망이 가득한 2009년의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깊은 시름을 걷어내고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함께 성장하고 희망의 열매도 함께 합시다. 회원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의 번성을 기원합니다.